



20년 한화맨 박정진 “다가가는 코치 될 것”

한화 이글스는 9위에 그친 2019시즌을 마치고 무섭게 마무리훈련에 돌입했다. 전 구단을 통틀어 가장 이른 10월 15일부터 충남 서산의 전용연습구장에 가을훈련캠프를 차렸다. 40여명의 1·2군 선수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유독 낮익은 얼굴의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10월말 한화가 발표한 2020시즌 1군 코칭스태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정진 코치(43)다.

2018년 20년간의 프로선수생활을 마감한 박 코치는 지난해 프런트에서 다양한 업무를 익혔다. 전력분석, 외국인선수 정보수집 등이 주요 일과였다. 최근 부여받은 새 임무는 볼펜코치다. 정민태 투수코치를 보좌하는 자리다. 지도자로 첫 걸음이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할 법하지만 박 코치는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편하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한화에서만 20년을 뛰어서 모든 게 편하다”며 “한용덕 감독님도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주셔서 편하고, 정민태 코치님한테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코치는 1999년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한 뒤 한 차례도 유니폼을 갈아입지 않았다. 1군 통산 691경기(789.1이닝)에 등판해 45승43패35세이브 96홀드, 평균자책점 4.55를 올린 팀의 레전드 투수들 가운데 한 명이다. 선수에서 코치로 역할만 달라졌을 뿐, 한화에 대한 애착과 열정은 여전히 수박에 겹다.

그런 박 코치에게 선수도, 코치도 아닌 프런트 업무연수로 보낸 지난 1년의 시간은 꽤나 유익했던가 보다. 그는 “선수로서 구단 사무실을 들락거릴 때는 (프런트 분위기가) 낯설었는데, 차츰차츰 익숙해지니까 편했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 책도 보고, 여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고 되돌아봤다.

‘중간자’로 보낸 그 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여름 미국연수다. 박 코치는 “80일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 주로 마이너리그 경기를 관전했다. 그라운드나 덕아웃이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많았다”며 “물론 우리(선수·지도자)는 이겨야 하지만, 팬의 입장에서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지도자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한 ‘코치 박정진’이 앞으로 후배들에게 즐기게 강조할 제1의 가치이자, 덕목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미리 확인하자”

행사 기간 ‘베이스볼 박스’서 전시
최동원·한일전 등 발자취 한 눈에



엘리트선수와 사회인야구, 그리고 일반 야구팬이 하나가 돼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토털 베이스볼 페스티벌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18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개막했다.

‘대한민국 야구 메카’를 꿈꾸는 기장군이 주최하고 스포츠동아, ㈜우투에스앤엠,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기장국제야구대축제는 기장국제야구대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

의 메인 프로그램 기장국제야구대회에는 리틀과 초·중·고·대 엘리트선수들, 유소년, 연식야구, 사회인야구팀, 실버팀, 장애인야구팀 등 전국에서 모인 총 170여팀이 참가한다. 중국의 유소년 야구팀과 홍콩의 사회인야구 대표팀도 초청됐다.

대회 첫날 뜨거운 열기 속에 엘리트팀 위주의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메인구장 앞에 위치한 흰색과 푸른색 조합의 ‘베이스볼 박스’가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를 찾은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건물에선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예의 전당 프리뷰 쇼’가 열린다. 기장군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명예의 전당 건립이 성사되면 그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을 한 발 빠르게 확인할 수 있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에 마련된 ‘베이스볼 박스’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애정품과 한국 야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명예의 전당 프리뷰 쇼가 매일 열린다. 기장 | 김종원 기자

는 기회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아카이브 내 소장품과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애정품, 한국 야구의 뜻 깊은 발자취가 담긴 귀중한 자료들을 총망라했다.

1층에 들어서면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한일전의 추억을 엿볼 수 있다. 2009년 3월 24일 일본과 결승전(3-5 패) 당시 라인업 카드

와 선수단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 시상품 메달, 헬멧, 포수 장비 등이 전시돼 있다. 당시 대표팀 투수코치였던 양상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의 AD카드도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 2015년 제1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당시 김인식 감독과 손아섭이 착용했던 유니폼, 기념 모자가 야구팬들을 반긴다.

발걸음을 옮기면 1962년 당시 부산고 선수였던 하일의 경남야구협회 선수등록증과 2002부산아시아게임 기념구 등 과거 한국 야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출구 앞에선 롯데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투수 고(故) 최동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인볼과 당시 야구 정기간행물, 시상품 등판, 유니폼을 직접 볼 수 있다. 기장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신월중 정현창(오른쪽)이 18일 부산 기장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중등부 대원중과의 경기 7회 무사 1루에서 2루 도루를 시도했으나 아웃되고 있다.

기장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개성고 최준혁 “아직 60%…전력투구 기대하세요”

공주고전 4.1이닝 1실점 V 활약
“내년 3학년…내 가치 입증할 것”

18일 부산 기장군의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19 기장국제야구대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국제야구대회 고등부 개성고-공주고전. 191cm·105kg의 당당한 체구를 지닌 개성고 선발투수 최준혁(17·2학년)이 눈에 띄었다.

이날 4.1이닝 동안 1실점으로 공주고 타선을 틀어막아 팀의 7-4 승리를 이끈 최준혁은 등판을 마친 뒤에도 볼펜에서 보강운동을 계속했다. 이를 바라보던 권



개성고 최준혁

대인 개성고 야구부장은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며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공이 묵직하게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경기 직후 만난 최준혁은 체격만큼 성격도 당당했다. “일단 팀이 첫 경기를 이겨서 기쁘다”고 운을 뗐 그는 “투수로서 내 강점은 역시 피지컬이다. 힘이 월등하다. 타자와 승부할 때 그런 점이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외쳤다.

내년 3학년이 되는 만큼 실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2학년 때

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최준혁은 “1학년 때는 투구폼을 많이 고치는 바람에 다소 옛갈림 측면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투구폼이나 메커니즘이 정립되긴 했지만, 아직 60~70%다. 내가 가진 힘을 전부 쓰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보완해야 할 점을 밝혔다. 힘을 더 쓸 수 있다면 시속 138km인 포심패스트볼 최고구속(평균 130km대 중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우진(20·키움 히어로즈)을 롤 모델로 꼽은 이유도 피지컬에서 기인한다. 안우진의 프로필 상 키는 191cm로 최준혁

과 같다. 최준혁은 “투구할 때 자신의 피지컬을 모두 활용하는 게 대단하다. 새 도파장을 할 때마다 안우진 선배의 폼을 보고 배운다”고 밝혔다. 구장을 바라보며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힌 최준혁은 “처음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는 긴장했지만, 당연히 우승이 목표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기장 | 강산 기자

- 주최: 기장군
- 주관: 스포츠동아 (주)우투에스앤엠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장군의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마무리캠프도 전력으로”…두산의 쉼 없는 질주

이형범·최원준 등 1.5군 맹훈련
코치들도 선수 육성 위해 땀방울

두산 베어스는 2019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러나 조금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장기레이스를 펼치며 쌓인 피로를 푸느라 다소 느슨해질 법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스파이크 끈을 더욱 조여 매고 있다. 지

난 2일 시작해 20일까지 이어지는 두산의 마무리훈련 풍경이 그렇다.

역대 KBO 사령탑 최고대우(3년 28억 원)에 제계약한 김태형 감독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진세력을 육성하며 팀스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김 감독은 “1.5군 선수 위주로 훈련한다”며 “스프링캠프 기간이 짧아서 마무리캠프를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선수들도 비활동

기간에 뭉가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선수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것이다. 이형범을 비롯해 최원준, 윤병준, 류지혁, 김인태, 국해성, 이우찬, 이흥련, 장승현 등 한 국시리즈(KS) 엔트리에 포함됐던 선수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것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김원형 투수코치는 볼펜에서 투수들을 일일이 점검하며 자신감을 심어준다. 미래의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는 김민규와 채지선, 김호준 등이 편안하게 볼펜투구를 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고, 포수들에게도 파이팅을 주문하며 투수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올해 프로 첫 시즌을 보낸 김대환은 강동우 코치의 쉴 틈 없는 토스배팅에 녹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지금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오후 1시에 시작해 4·5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정에도 동기부여가 가득하다.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도 확실하다. 스위치히터 국해성은 “오른쪽 타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형범은 “풀시즌을 뛸 수 있는 체력을 더 키우고 변화구도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훈련 분위기도 과연 ‘챔피언’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